

Korea Wine Challenge Great Contributors

코리아와인챌린지(이하 KWC) 2020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KWC 2020 컨트리뷰터 기사를 새롭게 시작한다. 이번 호의 주인공은 KWC 2020 최다 출품 생산자인 VSPT 그룹이다. 글 최준영 사진 및 자료제공 장영수, 금양인터내셔널, 하이트진로



포도를 수확하는 산 페드로의 직원들



산 페드로 와인터리 정문



타라파카 와인터리 건물



레이다의 포도밭

VSPT(Vina San Pedro Tarapaca S.A) 와인 그룹은 KWC와 인연이 깊다. 2007년부터 거의 빠지는 일 없이 KWC를 찾는 손님이다. 동시에 출품한 해마다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생산자다. 올해까지 수십 종이 넘는 KWC 수상 와인을 배출해 냈다. 2008년에는 까스피요 데 몰리나 소비뇽 블랑 레세르바(Castillo de Molina Sauvignon Blanc Reserva)로 트로피 화이트를 수상하기도 했다.

칠레 3대 와인 생산자에 속하는 VSPT 그룹은 2008년에 산 페드로(San Pedro)와 타라파카(Tarapaca)가 합병하면서 성립됐다. 현재 총 8개 브랜드로 구성된다. 산 페드로, 타라파카, 레이다(Leyda), 산타 헬레나(Santa Helena), 미션 드 랭고(Misiones de Rengo), 비나 마르(Vina Mar) 등 칠레 생산자 6곳과 라 셀리아(La Celia), 그라피냐(Graffigna) 등 아르헨티

나 생산자 2곳이다. 전체 재배 면적은 칠레 4,270ha, 아르헨티나 1,065ha로 도합 5,335ha에 달한다. VSPT는 칠레와 아르헨티나 곳곳의 산지에서 난 포도로 상호보완적인 특색을 지닌 와인을 다양하게 생산한다. 병입된 와인은 자국 내에서 소비되거나 전 세계 80여개 국가로 수출된다. 내수 시장에서는 판매율 1위를 자랑하며, 수출량은 칠레 내에서 두 번째로 많다.

VSPT는 전 세계 20위 안에 드는 와인 그룹이다. 남미에서 가장 뛰어난 제조 방식과 최첨단 기술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. 규모와 영향력이 커져가는데 따라 환경 문제 역시 각별히 신경을 써 왔다. 2016년에는 세계 1위 회계법인 딜로이트(Deloitte)의 인증 항목에서 360점을 받아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인 와인 생산자로 꼽혔다. 2021년까지 그룹 내 소비 전력을 모두 재생용 가능한 천연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계획 역시 진행하고 있다.

국내 와인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VSPT 제품은 산 페드로의 '1865'다. 산 페드로가 설립된 해를 기념해서 만들어졌다. 1865는 셀렉티드 빈야드(Selected Vinyards), 셀렉티드 블렌드(Selected Blend), 셀렉티드 콜렉션(Selected Collection) 등 세 단계 레인지로 구분된다. 국내 소비자에게 가장 친숙한 라인은 셀렉티드 빈야드다. 연구를 통해 각 포도 품종의 특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만든 싱글 빈야드 와인이다.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품질이 높아 소비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.

VSPT 그룹은 올해 KWC에도 어김없이 참여해 가장 많은 와인을 출품하며 KWC 2020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생산자로 기록됐

다. 출품 와인 중 21종이 수상 와인 리스트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. 1865 피스코 배럴(1865 Pisco Barrel)로 베스트 칠레 레드-는 물론 다양한 와인을 통해 골드, 실버, 브론즈 메달을 골고루 휩쓸었다. VSPT 그룹 와인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던 결과였다. ㄱ

VSPT 그룹 대표 수상 와인 리스트

No.	와인명	생산자	수입사	수상부문
1	1865 Pisco Barrel	San Pedro	금양인터내셔널	Best of Chile
2	Castillo de Molina Tributo	San Pedro	금양인터내셔널	Gold
3	Tarapaca Gran Reserva Chardonnay	Tarapaca	하이트진로	Gold
4	Leyda Single Vineyard Garuma	Leyda	금양인터내셔널	Silver